



# 2018년 항공우주 논문상 공모전

## | 공모대상 및 분야

- 논문상
- 분야: 정책/경영, 기계/엔진, 재료/소재, 전자/전기

## | 응모대상

-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 휴학생(전공불문)

## | 논문제출 및 방법

- 논문마감 | 2018년 9월30일(일)
- 제출방법 | E-mail 접수 kaiaward@koreaaero.com
- 수상결과 | 2018년 11월 중순 예정
- 시상일정 | 2018년 11월 말 예정(추후 통보)
- 문의처 | 055) 851-2799, 9797

## | 시상내역

시상구분	시상	부상
최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KAI CEO상	표창(상패) 및 상금 각 300만원
우수상	2명	표창(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3명	표창(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특별상	2명	표창(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 최우수상(주전자) 수상자 대상 해외탐방기회 제공  
· 2019 HAI Heli Expo 미국/세계 최대 회전익 전문 엑스포  
· 기간: 2019년 3월초(3박4일)

자세한 사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홈페이지 [www.koreaaero.com](http://www.koreaaero.com)을 참조하십시오.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매거진

KAI magazine

2018 August  
Vol. 224

Fly  
Together

서프라이즈 이슈  
지속적 경영혁신으로  
세계 5위 항공기업 목표

MAIN THEME  
제품과 기술에 대하여  
제작자인 혁신을 추구하라

kaiwebzine.com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  
에서 KAI서버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스페셜 테마**

- 04 MAIN THEME\_지속가능경영 가치체계  
행동원칙 실천가이드\_도전과 혁신 편②  
제품과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인 혁신을  
추구하라

**서프라이즈 KAI**

- 08 서프라이즈 이슈  
① 윤리경영 실현과 미래 성장 위한  
우리회사의 경영혁신 노력  
② KAI,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 14 트렌드 칼럼  
한국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김동규 비서관
- 18 KAI 인문학  
최초의 여류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  
권기옥 스토리
- 20 What's new  
Keyword로 보는 최신 항공우주 뉴스



발행일 2018년 8월 6일(통권 224호·8월호·비매품)

발행인 김조원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홍보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면 공단1로 78

담당자 조연진 과장 055)851-6962

제작대행 군디자인연구소 051)796-6600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사천 라 00004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  
린 외부 필자의 원고는 KA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I의 승인 없이 무단 복  
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며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인사이트 KAI**

- 22 KAI 현장포커스  
① 대졸 공채 16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현장  
② 영국 판보로 국제 에어쇼 2018 참가기
- 26 KAI People  
기체생산2팀3직 박정호 전문기술원  
기체생산1팀1직 옥창민 전임기술원  
미방산체계구축팀 서우섭 차장
- 28 패밀리가 간다  
지원체계기획팀 박병참 선임 가족의  
신나는 수상레저 체험

- 32 KAI 이심전심  
고정익체계팀 APT 개발파트원들의  
분위기 있는 와인 초보강습
- 36 나의 여행이야기  
생산관리팀 이재호 과장의 꿈으로 떠난  
가족 자유여행기
- 40 KAI toon  
슬기로운 직장생활

**위드 KAI**

- 42 나눔의 현장  
KAI 나눔봉사단이 만든 안전구역  
'옐로카펫'
- 44 KAI 북클럽  
조립생산팀 김상규 조장이  
이승민 사원에게
- 45 뉴스 브리핑
- 50 독자세상
- 51 독자이벤트



마린온 임무수행 중  
유명을 달리한  
순직장병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부상장병의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KAI 구성원 일동



# 제품과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인 혁신을 추구하라



제품과 기술에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KAI인의 행동지침

## 리더 실천 지침



### 기술 혁신 기회 제공

제품과 기술에 대한 혁신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성원 지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기회를 제공한다.

02



### 기술 수준 향상 활동 촉진

구성원이 기술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기술 향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업 간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수 요인, '기술혁신'

세계 경제생태계는 기술혁신형 기업의 지속적인 출현으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회사도 생존을 넘어 성장·발전을 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술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고객에게 사랑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기술혁신의 방향성과 최근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데니슨(E. F. Denison)을 비롯한 여러 경제학자들은 산업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노동력, 자본, 기술 등의 각종 경영자원 중에서 산업발전의 50% 이상이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달성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전체 생산 증가의 약 90%가 앞선 기술에 기인한 결과이며,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치열한 기업 간 경쟁 형태도 자본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경쟁 중심으로 점차 변화됨에 따라 기술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은 기업이라는 조직이 제품에 대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하여 실용화함으로써 시장이나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때문에 기업이 추구해나가는 기술혁신은 신제품 개발과 기존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제품차별화와 원가 우위를 점하게 해주며 기업 간 경쟁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는 원천적인 힘이 된다. 한마디로 기술혁신은 기업의 제품경쟁력,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시장침투력을 상승시키는 가장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12년 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회사가 지향하는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혁신이 단순히 제품의 질적 향상으로 인한 회사의 성장을 뛰어넘어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 갈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도달하는데 독일은 6년, 일본은 4년, 스위스는 2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아직 3만 달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제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각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회사의 역할 또한 더욱 부각되고 있다.



## 개인 실천 지침

01



### 기술동향 파악

우리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환경변화, 기술동향,  
개인의 직무기술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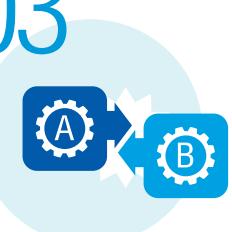
02



### 기술에 대한 이해

모든 구성원이 회사의 주력 제품과  
시기고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03



### 지속적인 혁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기술을 발전  
시키고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변화의 대상과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기술혁신의 방식'

기술혁신의 방식에는 변화 대상과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변화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과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으로 분류된다. 제품혁신이란 말 그대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혁신을 말하며, 공정혁신은 생산효율성을 높이거나 생산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작업방식, 작업 흐름 등에 새로운 변화를 도입해 실용화하려는 혁신을 말한다.

기술혁신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는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과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점진적 혁신이란 286컴퓨터에서 486컴퓨터로 개선해 나가는 경우나 소프트웨어인 한글이나 워드 기능의 업그레이드처럼 기술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기존 기술의 개선이나 보완적인 혁신을 말한다. 점진적 혁신을 실현 하려면 기업 전반에 걸쳐 혁신 동력을 파악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만 한다.

급진적 혁신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연료전지 자동차로 대체하거나 개인용 컴퓨터가 타자기를 대체하는 경우와 같이 기존의 기술 시스템을 근본적인 측면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변화를 일컫는다. 급진적 혁신은 새로운 생산라인, 새로운 시장의 개척, 비즈니스의 급진적 개선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므로 많은 지원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성공하면 획기적인 성장의 계기가 된다.



## 우리도 기술혁신의 물결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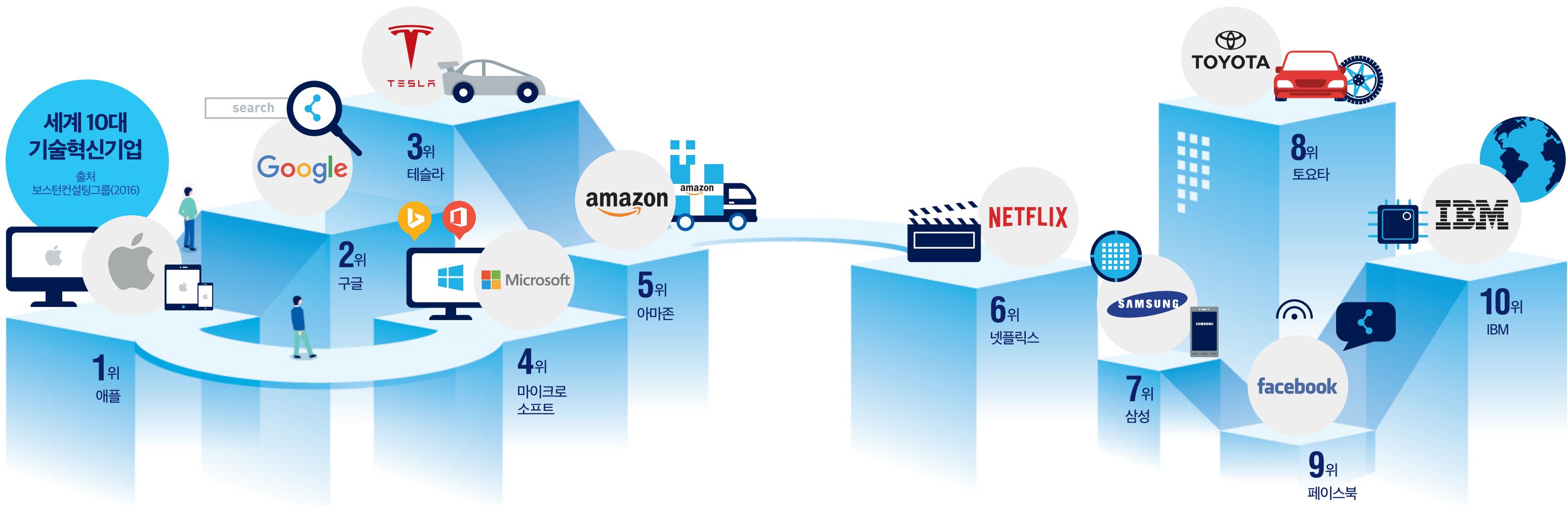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혁신은 대학이나 정부연구기관 등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내부 구성원이 기술혁신의 원천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가 적지 않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는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중견기업 이상의 수준)이 된다면, 다양한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자체적인 기술혁신이 가능하며 효과도 크다고 말한다.

세계적인 산업화의 대열에 후발주자로 합류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추종자의 위치에 만족할 수 없다. 현재의 기술 혁신은 미국과 중국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적·군사적 패권의 향배를 가늠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수년 내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

전 이후 기술혁신에 매진하기 시작한 반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국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지만 오늘날의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 등의 기업과 수많은 자국 내 벤처기업들이 베이징과 상하이, 항저우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기술혁신 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제품의 목표시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상응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정립하는 등의 체계적인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회사 발전과 더불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대의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기술혁신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지속적 경영혁신으로 세계 5위 항공기업 목표

윤리경영 실현과 미래 성장 위한 우리회사의 경영혁신 노력

## 윤리경영 선포문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항공회사의 위상에 걸맞은 업무자세로 국제적 기준의 윤리규범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갑과을 이 아닌 동반자적 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관계를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회사 내 업무 수행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부정과 비리에 대해 철저히 배격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 어니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회사가 지난해 연이어 터진 악재는 신임 김조원 사장이 취임하면서 기업의 체질을 혁신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 올 1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반전을 일으켰으며,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1위 항공기업으로 거듭나는 발판이 됐다. 글로벌 톱 수준의 항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회사의 새로운 경영시스템과 경영활동을 살펴보자.

## 경영혁신위원회 꾸려 의견 수렴 및 경영시스템 보완

우리회사가 2030년 세계 5위의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로 도약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 회계처리 시스템, 미래전략 개발 분야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올바르게 정착시킴으로써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지닌 항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우리회사 김조원 사장이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회계와 경영, 조직 전반에 걸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연말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 내부 토론과 외부 자문을 통한 개선점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력했다. 위원회는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호중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등 5명의 외부전문가와 우리회사 각 분야별 실장 및 팀장급 등 직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2개월간 활동하면서 미래전략, 연구개발, 조직인사, 재무회계, 구매관리 등 5개 분야와 80여 개의 혁신과제를 조사하고 10대 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446건의 내부 의견을 수렴해 분석했으며, 그 결과 우리회사가 급격한 외형 성장에 따른 내부역량 축적과 선진화된 경영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회계방식인 IFRS-15 도입

글로벌 스탠더드로 도약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구축은 회계시스템 정비부터 시작됐다.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문인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한 새로운 회계기법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15'를 도입함으로써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이라 불리는 IFRS-15는 협력업체에 대금(선급금) 지급 시 매출로 인식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양산은 고객 납품 기준을 개발은 진행률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회계기준의 도입은 회사 설립 이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고 일관되게 적용해 왔던 방식이 보수적 관점에서는 미흡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어 회계방식을 새롭게 전환했다.

## 윤리경영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

윤리경영을 위한 법규준수 절차와 통제 시스템도 마련했다. 우리회사는 국제 기준의 윤리규범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관계를 구축, 기업의 청렴도 향상에 대한 실천의지로 '윤리경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윤리경영지원본부'를 신설해 인사, 재무, 회계, 구매, 영업 등 경영 지원업무 전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회사의 모든 신규 정책과 규정은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명한 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변경, 경영과 감독을 분리·운영하는 등 이사회의 기능과 독립성도 대폭 강화시켰다. 또한 전사자원관리, 즉 '차세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구축해 기업 전체 자원을 효과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사내 규정, 정책 및 절차 개정, 윤리 및 준법사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해 윤리·준법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노력은 시스템 구축으로만 그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준법경영의 일환으로 전 구성원 대상 온·오프라인 윤리경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회사가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부패 관리시스템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부패 방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국제기준의 'ISO 37001'을 인증받기 위해 한국표준협회에 구성원들의 부패 척결 의지, 경영진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부패방지 교육 및 부패 위험 파악도 등의 평가를 요청했다. 또 ISO 37001 인증과 별개로 부패방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호와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정책 실시 등의 윤리·준법시스템을 강화했다.



## MRO·KF-X·LAH/LCH 등 대형사업 연이어 수행

우리회사의 경영활동이 지난해와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면, 태국 등 외제기 납품 정상화와 KF-X 및 소형무장헬기 체계개발사업이 본격화됨으로써 올해 1분기 매출액이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우리회사가 정부로부터 항공정비(MRO)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MRO사업이 추진돼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추가 국산 항공기 수출 등으로 신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회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부지원 MRO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6월 14일 국내 최초의 MRO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를 공식 출범시킨 것은 눈에 띠는 경영성과 중 하나다. 앞으로 엔진 정비 등 고부가가치 정비사업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나갈 KAEMS는 LCC(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기체 정비를 시작하여 국내 대형항공사, 해외항공사 등으로 정비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KAEMS는 외화 유출 방지, 항공기 운항 안정성 제고, 항공산업 발전 및 인프라 확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선도 기업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KF-X와 LAH/LCH 개발 등 대형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역시 또 하나의 성과다. 지난 6월 말 KF-X의 기본설계(PDR)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한국형 전투기의 외형이 결정됐고, 이를 기반으로 2019년 상세설계(CDR) 완료, 2022년 초도비행, 2026년 6월 개발 종료를 목표로총력을 다 하고 있다. 또 소형무장헬기인 LAH의 민수형인 LCH 1호기가 지난 7월 24일 초도비행을 마쳤으며 LCH의 공통기술을 활용해 3,400억 원의 개발비용을 절감, 2022년 개발 완료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특히 KF-X와 LAH/LCH 개발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우리회사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700여 명의 인재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의 협자 노력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은 국내 항공산업 역량을 결집한 대형 개발사업으로서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구성원 의지 담은 경영혁신 통해 기업 비전 달성

KAI는 2030년 매출 20조 원 세계 5위의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KAI는 국내 항공산업 생산액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항공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회사의 핵심 전략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신규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는 경영혁신위원회가 도출한 개선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시스템의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영시스템 구축, 기술혁신과 핵심역량 강화, 사회적 책임 실천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도 함께 펼치고 있다. 우리회사의 사회공헌 체계는 크게 '지식나눔'과 'KAI 봉사단'으로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2,539명이 참가한 'KAI 에비에이션 캠프'는 교사와 학생 대상 수학·과학원리 체험학습장으로 거듭났으며, '6시그마'와 같은 혁신교육을 통한 협력업체 기술지원 등 우리회사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나눔 활동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임직원의 재능기부를 포함한 교육·문화 지원 사업, 벽화 봉사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KAI 봉사단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회사는 국내 1위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시장을 공략하며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항공우주기업들과 경쟁하고 미래를 주도할 글로벌 기업 KAI의 내일을 기대한다.

#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동행

우리회사가 지난 6월 2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그간 상생과 협력으로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온 결과다. 우리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짚어본다.

## 동반성장은 경제 선진화 실현의 열쇠

현재의 산업은 융·복합화 추세와 더불어 기술의 복잡성이 확대되는 등 단일 기업 홀로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 어려운 시대이다. 더욱이 글로벌 경쟁 양상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기업 간의 경쟁에서 탈피해 기업네트워크 간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는 물론,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 노력에 따른 성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제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이러한 노력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한 점수로 처리된다.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 측은 더욱 신뢰 있는 평가를 위해 체감도 조사 설문 항목 개편,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실적평가제 도입, 공표방식 개선, 동반성장 관련 법규 위반기업에 대한 보다 엄중한 평가 등을 통해 동반성장지수 성과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우리회사 협력업체와의 상생 위한 다양한 노력 펼쳐

지난 6월 27일,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리회사가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사회적 책임을 지닌 기업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인식 하에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꾸준히 공유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발표에서 ‘협력업체 일자리 보존지원 우수사례’에도 선정돼 동반성장 모범기업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우리회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의 해외수주활동과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상생자금 지원을 비롯 수주·구매·생산·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을 개선하고 이들의 복지를 위한 혜택을 아끼지 않아 왔다. 협력업체 근속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8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초기 18%에 불과했던 3년 이상 근속률을 무려 50% 이상 끌어 올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협력사의 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해 매년 6억 원(KAI 4억 원·정부 2억 원)을 지원, 협력업체 직원들의 기념일을 쟁겨 주거나 학자금 지원, 체육·문화 활동 지원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우리회사의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 등급 평가는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다.

## 내실 있는 동반성장 위한 사내 워크숍 개최

한편, 지난 7월 6일 우리회사는 ‘동반성장 워크숍’을 개최해 이번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과 관련, 그 성과와 반성할 사항에 대해 구성원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송원근 교수를 초빙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범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결집, 관련 업무에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과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 우리회사는 2030년까지 매출 20조 원 달성과 세계 5위의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가진 만큼 협력업체의 인프라 확보와 역량 강화,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기술개발·생산 등 각 부문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획득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INCENTIVE 1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1년간 면제

INCENTIVE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 사업별로  
기업에게 가점 부여

INCENTIVE 3  
기획재정부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점 부여

INCENTIVE 4  
법무부  
출입국심사  
우대카드 발급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김동규 비서관

## 한국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국가안보의 근간인  
방위산업을 살리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방산 활성화 정책

국가안보의 3축 체계는 강력한 군사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 재정, 그리고 군이 요구하는 첨단무기체계를 자력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는 방위산업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한 축이라도 약화되면 그 나라의 국가안보는 위태로워진다. 미국이 뛰어난 군사전략과 더불어 국방과학 기술력도 항상 우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이 신무기체계를 통한 군사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의 핵심 구성요소라는 점을 증명한다.

그러나 국방전문지 기자와 국회 국방위원 보좌진을 경험하며 외부 견제자의 시각으로 본 한국 방위산업은 언제나 위기였고 이제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방산기업들은 내수시장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영세한 산업구조 하에서 민간 제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영업이익률과 가동률로 인해 성장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상황이다. 매년 확정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시장 규모를 결정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해외도입으로 빠져나가는 탓에 국내 방산기업이 손에 쥐는 이익은 민간기업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국가가 가진 과학기술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어진 시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길 요구받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마치 벽돌을 제 시간에 쌓아올리지 못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비리의 온상으로 오해받는 현상도 방위산업을 침체에 빠뜨렸다. 한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방산비리 바람으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나 부실도 비리로 치부돼 관계자들은 갖은 제재와 처벌을 감내하고 있다. 삼성이 방위산업 분야를 완전히 포기하고, 각 군의 엘리트만 모았다는 방위사업청 획득 장교들이 줄줄이 모군 복귀를 신청하는 상황은 한국 방위산업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가안보의 근간인 방위산업을 살리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견제자의 시각에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산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의 핵심 구성요소라는 점을 증명한다.

방위기업들은 내수시장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영세한 산업구조 하에서 민간 제조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영업이익률과 가동률로 인해 성장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상황이다. 매년 확정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시장 규모를 결정지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해외도입으로 빠져나가는 탓에 국내 방산기업이 손에 쥐는 이익은 민간기업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국가가 가진 과학기술력을 총동원해야 하는 높은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어진 시간 내에 개발이 완료되길 요구받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마치 벽돌을 제 시간에 쌓아올리지 못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비리의 온상으로 오해받는 현상도 방위산업을 침체에 빠뜨렸다. 한동안 나라를 뒤흔들었던 방산비리 바람으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나 부실도 비리로 치부돼 관계자들은 갖은 제재와 처벌을 감내하고 있다. 삼성이 방위산업 분야를 완전히 포기하고, 각 군의 엘리트만 모았다는 방위사업청 획득 장교들이 줄줄이 모군 복귀를 신청하는 상황은 한국 방위산업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가안보의 근간인 방위산업을 살리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견제자의



### 정부 주도 방산기업 대통합 추진

밀을 시도하거나 실패하는 등 국제 방산업계는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구매자가 다양한 민수산업과 달리 방위산업은 정부가 유일하여 가격·이윤·생산 등을 철저히 통제받는 수요독점 시장이다. 정부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복수경쟁, 저가입찰 제도 등을 도입 운영하였으나 업체 간 중복투자와 과당경쟁으로 인해 경쟁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3년 미국은 '마지막 만찬' 이후 50여개가 넘는 방산기업을 보잉·록히드 마틴·노스롭 그루먼·레이시온 빅4로 통합했고 유럽 국가들도 90년대 이후 미국의 방산업체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 대통합을 추진했다. 시장지배력 확보를 넘어 수익화를 위한 방산기업 인수합병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도 이제 경쟁보다는 방산기업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개발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통합 과정은 지휘통제·항공·함정·유도무기 등 분야별 통합 이후 영국식 대통합 순으로 진행한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기업 대통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①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및 수익의 다각화 ② 중복·과잉투자 방지 ③ 해외 방산 선진국처럼 방산기업 주도 연구개발 활성화 가능 ④ 국가 간 방산업체 인수합병을 통한 국제시장 확보 기틀 마련 등이다. 이미 한국에는 KAI라는 방산기업 대형화 모범사례가 존재한다. 만약 1999년 항공산업 빅딜을 통해 KAI로 항공우주산업 개발역량이 집중되지 않았다면 과연 초음속고등훈련기 T-50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아마 현재 추진 중인 보라매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포기했을 것이다.

방산업체 대통합이 특정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져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과 비용절감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해법은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가 국내 유일 방산기업인 BAE시스템즈를 통제하기 위해 국외 업체에 자국 방산업체 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유도한다. 수요독점 시장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정부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통합을 통해 방산업체가 단 하나만 남는다 해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국내 방산시장은 방위력개선비 중에서도 국내 도입 무기에만 한정되는 협소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100여개의 방산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어 과당경쟁과 중복투자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AI의 주력인 항공체계종합은 물론 정밀유도무기, 방산전자 등 분야별 2~3개에 달하는 기업이 경쟁을 벌이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주도하는 국내 방산기업 대통합 추진 필요성에 대한 여러 방산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미래기획위원회는 정부가 방산기업의 자율적 인수합병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냈지만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2012년 BAE시스템즈와 EADS(현 에어버스)가 빅

## 국방과학연구소 기능 개편과 민간 연구개발 역량 강화 정책 절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 방위산업 발전모델을 공부하기 위해 정밀유도무기 개발 업체 라파엘(RAFAEL)을 방문했다. 여기서 한국과의 많은 방산협력 경험을 통해 방산업계 사정을 잘 안다는 관계자가 한 가지 조언을 했다. 그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국과연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기업인 라파엘도 1948년 설립 당시에는 국과연과 유사한 국방부 산하 연구개발 조직이었지만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무기체계 개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이었다고 한다. 그러한 경험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하우스'인 라파엘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고 한다. 국과연이 많은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탐색개발·체계개발을 통해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문제제기는 국내에서도 90년대부터 있어 왔고, 이명박 정부 미래기획위원회도 국과연 기능재편 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미래기획 위는 선진국은 민간중심으로 국방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은 국과연 비중이 과도하다며 전략·비닉무기를 제외한 일반무기는 모두 업체중심으로 이관해야한다고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과거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수준이 낮을 때는 국과연의 역할이 중요했으나 대학·출연연·방산기업 등 민간부분 연구개발 역량이 급속도로 높아진 현재는 국방연구개발 분야에 민간부문의 참여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히다. 그간 국과연이 연구개발을 주도하다 보니 민간 방산기업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방산 선진국은 민간이 국방 연구개발을 주도한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기업 라파엘이나 국영기업 IAI가 민간 방산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해온 사실은 국과연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민간 방산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과 정부 관리감독 하에 어렵게 성장해온 반면 국과연은 연구개발 예산과 역량을 독점하며 40여년을 보냈다. 또 국과연은 기업과 달리 계약책임과 상위기관의 관리감독이 없어 실패를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업체들은 사업부실에 따른 자체상금을 부과 받지만 국과연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과연 기능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국과연의 뛰어난 연구개발능력은 기초핵심기술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투입하고 일반 무기체계 개발은 모두 업체로 이관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 사업관리가 필요한 전략·비닉 무기체계도 국과연의 주요 임무로 두되, 업체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과연을 미국 DARPA나 과거 록히드 마틴의 혁신을 이끌었던 '스컹크 웍스' 같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메카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 실종된 국가 차원 방위산업 진흥 정책

그간 방위산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방산활성화 대책은 미흡했다. 현재 한국의 방산진흥정책은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한 축인 방위산업 진흥정책을 사업 관리감독하기도 바쁜 외청 규모 조직에 맡겨두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보인다.

방산물자 계약은 거래국 간의 방산 협력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정치·외교적 관계를 고려하고, 주변 국과의 긴장 관계에 따른 사업화 기밀 유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보증, 필요시 금융지원, 수명주기 동안의 안정적 후속지원 등을 요구하는 특성이 있다. 인지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선진국의 방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활동이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방산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방산수출 전담기구를 설립해 업체들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면서 정부 간 거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방산전문가들이 이미 지난 정부부터 청와대에 방산비서관을 신설해 방위산업을 총괄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KOTRA, 국방무관 등 방산수출 관련 기능을 가진 조직의 역량을 통합하고 타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방산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와대가 직접 방산정책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직접 방위산업 활성화를 책임진다면 앞서 제안한 방산업체 대통합이나 국방연구개발 제도 개선도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나라는 잃어도 하늘만은 잃지 않았다

**최초의 여류 비행사이자  
독립운동가 권기옥 스토리**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이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권기옥(1901~1988) 선생은 불꽃같은 삶을 살았다. 시대의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독립운동가로서,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우리 공군 창설의 산파 역할을 한 그녀의 삶을 조명해보자.



### 10대부터 3.1운동 등 조국의 독립운동에 투신

꽃다운 17살, 한 소녀의 눈빛이 반짝인다. 1917년 5월 평양에서 열린 미국인 아트 스미스의 아찔한 곡예비행 장면을 본 어린 권기옥은 그 순간부터 '나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조국의 상황은 암울했고 그저 지켜 볼 수만은 없었다. 이듬해 송의여학교 3학년에 편입한 그녀는 선생님의 권유로 비밀 항일조직인 '송죽회'에 가입했고, 1919년 3.1 만세운동에 친구들과 태극기를 만들어 적극 가담한 죄로 체포됐다. 출옥 후 권기옥 선생은 임시정부의 연락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경찰의 주요 감시대상으로 낙인이 찍게 된다.

1901년 1월 평안남도 평양부 상수구리에 태어난 선생은 집안의 몰락으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미 10대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투신해 영화와 같은 파란만장한 삶을 시작했다. 3.1운동 참여로 유치장에 풀려난 뒤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은밀히 진행하다 평양지역 청년조직과 연루되어 경찰서에서 수십 번을 기절하는 모진 고문 끝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형기를 마친 뒤에도 평안남도 도청 폭파사건 가담, 여자전도대 활동으로 경찰의 감시가 갈수록 옥죄어오자 1920년 9월 멀치잡이 배에 숨어 상해로 탈출을 감행했다.

### 운남항공학교 졸업, 중국 공군으로 항일 전투

상해에 도착한 권기옥 선생은 임시정부 요인들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어릴 적 꿈인 비행사가 되기 위해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1923년 중국의 운남항공학교에 당당히 입학했다. 그러나 애초 입학은 쉽지 않았다. 단지 여자는 이유로 학교장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장은 독립 운동에 뜻을 품고 멀리 조선에서 건너온 한 소녀의 끈질긴 노력과 용기에 감복해 전격적으로 입학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운남항공학교에는 프랑스제 80마력인 코드롱 복엽기와 150마력짜리 브리케이트 단발기, 이탈리아제 안살도 등 20여 대의 연습기가 있었다. 권기옥 선생은 반드시 일본으로 폭탄을 안고 날아가리라는 각오를 다지면서 이곳에서 2년 동안 총 1,500시간의 비행시간과 비행술을 훈련받고 졸업함으로써 마침내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가 됐다. 한편 일본은 항공학교에 여류 조종사가 있다는 첨보를 접하고, 학업 중인 그녀를 집요하게 찾아내 살인청부업자를 시켜 사살하려 했지만 권기옥 선생은 먼저 그 사실을 알고 밀정을 유인해 동료와 함께

권총으로 처단하기도 했다. 이후 선생은 1926년 동로군 항공대 부비항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항공대 대장인 서활보의 소개로 독립운동가 이상정(1896~1947, 시인 이상화의 형)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1927년 봄, 중국 국민혁명군이 공군을 창설하자 상해로 가서 중국 공군 비항원으로 임명되어 수많은 전과를 통해 혁혁한 전공을 세운다. 1931년 만주를 기습 점령한 일본이 이듬해 상해전쟁을 일으키자 중국이 승리하면 조선도 해방될 것이라는 일념으로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으며, 중일전쟁이 격화되자 중국 육군참모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후배들을 교육하기도 했다(선생이 중국 공군에 복무하면서 기록한 비행시간은 7,000시간이다). 그러나 언제나 권기옥 선생의 마음속에는 폭탄을 싣고 일본으로 날아가 기어코 천황궁을 폭파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다.

### 대한민국 최초의 공군 창설 산파 역할

1939년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와서 정착하자 권기옥 선생은 분열됐던 대한애국부인회를 재건하고 사교부장을 맡았다. 중국 공군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조선인 동지들과 한국비행대 편성과 작전계획을 구상했으며, 1945년 임정 군무부의 '한국 광복군 비행대의 편성과 작전'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서 비행기를 지원받아 조선총독부를 폭격하리라는 꿈에 부풀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해방이 찾아오는 바람에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1948년 귀국한 선생은 1950년부터 1955년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공군 창설에 기여해 '공군의 어머니'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으며 여성을 올바른 역사를 세우고자 최초의 여성 출판인으로도 활동했다. 보수와 차별이 난무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여성의 몸으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남자들도 되기 어려웠던 비행사로서 전쟁에 참전해 조국 독립에 대한 열망을 키웠던 선생의 삶은 광복의 달을 맞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한다.

생전 권기옥 선생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당당히 말했다.  
“꿈을 가지라우! 꿈이 없으면 송장이나 다를 게 없다 알가서! 특히 젊은이들은 꿈이 있어야 돼! 내 지금 열댓 살이라면 말이야, 우주비행사를 꿈꾸겠어. 우주여행을 하고 싶단 말이다. 미국 아해들이 달에 갔다 왔는데 우리라고 와 봇 가겠어.(중략) 해보지도 않고 아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어느 나라든 젊은이들이 꿈이 있고 패기가 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어. 다른 나라가 함부로 넘보지도 못하고 말이디!”

## WHAT'S NEW KEYWORD로 보는 최신 항공우주 뉴스

세계 각국이 자국의 항공우주기술뿐만 아니라 활발한 대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종의 전투기와 여객기, 발사체를 선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뜨거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세계 항공우주업계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 에어버스의 신형 소형여객기 2종 공개

지난 7월 12일 에어버스가 프랑스 툴루즈 근교 앙리 지글러(Henri-Ziegler) 딜리버리 센터에서 A220-100(120석 규모)과 A220-300(130~140석 규모) 신형 항공기를 공개했다. A220 패밀리 항공기의 두 가지 모델인 이 항공기는 에어버스가 봄바디어(Bombardier)의 CS시리즈의 생산라인을 매입하게 되면서 항공기 이름을 A220으로 변경한 것이다.

A220은 100~150석 규모의 여객기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기존의 에어버스 A320 네오 시리즈를 더욱 완전하게 보강한 기종이다. 봄바디어 CS시리즈가 에어버스로 옮을 갈아입고 이처럼 소형여객기 시장에 뛰어들에 따라, 이 부문의 선두주자인 브라질 엠브레어(Embraer)와 합작한 보잉사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3D프린팅 기술로 가장 큰 위성부품 제작

록히드마틴이 3D프린팅 기술로 역사상 가장 큰 금속 위성부품을 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16일 다국적 IT정 보매체인 엔가젯(Engadget)에 따르면 롱히드마틴은 최근 위성 연료탱크 덮개로 쓰이는 거대한 티타늄 돔의 마지막 품질 검사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지름 1.2m 두께 10cm의 이 부품은 커피 1,191잔, 도넛 530개를 담을 수 있는 크기로 기존 방식으로 만들면 1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3D프린팅 기술로 3개월 간 제작했다. 티타늄은 가볍고 단단해 항공우주용 소재로 널리 쓰이지만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고 제작비용이 높다는 단점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롱히드마틴의 인공위성 부품제작이 3D프린팅 기술로 성공함에 따라 인공위성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영국 유·무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공개

영국이 현재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Tempest)'를 지난 7월 16일 개막한 판보로 국제 에어쇼에서 공개했다. 템페스트라는 명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이 애용한 동명의 전투기로, 특유의 빠른 속도로 독일의 V-1 미사일 630여 발을 요격하는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약 20억 파운드(한화 약 3조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될 템페스트는 202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템페스트가 평소에는 조종사가 필요한 유인전투기지만, 유사 시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BAE시스템스를 비롯해 롤스로이스, 레오나르도, MBDA 등 다국적 방산업체들이 참여해 개발하는 템페스트는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함에 따라 스웨덴이나 일본 등과의 협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 러시아, 우주정거장까지 비행시간 신기록 수립

러시아 우주화물선의 국제우주정거장(ISS)까지 도달 비행시간이 3시간 40분을 기록해 세계신 기록을 경신했다. 우주정거장에 식품, 의약품, 연료 등의 보급품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지난 7월 10일 카자흐스탄 발리코누르 우주기지에서 프로그레스 MS-09호를 발사해 우주정거장과의 도킹까지 마의 4시간 벽을 깨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2000년 처음으로 프로그레스 화물선을 발사해 이를 만에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이후 점차 기록을 단축해 이번에 최단기록을 세우게 된 것이다. 이는 러시아의 화물우주선, 유인우주선의 우수한 발사 능력을 보여주는 예로, 앞으로 기록이 더욱 단축될 것으로 전망돼 우주인들이 겪는 육체적 부담과 피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까지 우주정거장에 머무는 프로그레스 MS-09호는 우주정거장의 노후한 피르(Pir) 도킹 모듈을 달고 지구로 귀환한다.

## SpaceIL

### 이스라엘 최초의 달착륙 무인우주선 개발

구글이 2천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2007년부터 진행한 민간 달탐사 경쟁 프로젝트인 '루나 엑스프라이즈(Lunar Xprize)'가 마감시한을 올해 3월까지 연장한 끝에 결국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다섯 팀이 참가해 경쟁을 벌였는데, 그 중 한 팀인 이스라엘의 비영리 우주 기술개발단체 '스페이스IL'이 지난 7월 10일 달착륙을 시도할 무인우주선을 올해 12월에 발사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주선의 무게는 약 600kg, 직경 2m, 높이 1.5m의 크기로 달 착륙 후 달 표면에 이스라엘 국기를 세우고 자기장을 측정하는 과학적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2011년부터 시작한 스페이스IL의 달탐사 우주선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AI)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스라엘은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달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4번째 국가로 기록된다.





## 하늘 높이 떠오른 새내기들의 꿈을 만나다

대졸 공채 16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현장



### MINI INTERVIEW

2차 입문교육 신입사원 대표  
한윤탁 사원

해군 장교로 복무하고 전역 후 곧바로 우리회사에 지원해 입사에 성공한 한윤탁 사원은 2차 입문교육 신입사원 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해군 6항공전단에서 P-3CK 해상초계기를 접하면서 우리회사를 알게 됐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도전정신으로 입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우리회사가 담당하는 항공우주산업이 국가의 미래산업을 주도할 핵심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지원했습니다. 이제 배워가는 단계이지만 기본 기술을 잘 다져서 산업적 측면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면 사내에서 주도적인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학부를 졸업해 나름의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민수영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군 시절 계약장교로 근무했던 실무를 바탕으로 각 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보태 우리회사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윤탁 사원은 이번 교육에서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나 예절, 커뮤니케이션 역량 배양 등에 대한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자신의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자신감에 차 있다. 앞으로 그의 행보에 건투를 빈다.

**올 초 우리회사 15기 새내기 사원이 입사한데 이어 지난 6월, 16기 대졸 공채 신입사원 합격자 발표로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됐다. 이에 따라 우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입사한 이들에게 우리회사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적용하기 위한 교육을 1·2차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중 신입사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녹아든 KAI 에어쇼 현장을 다녀왔다.**

#### 조별 미션을 담은

#### 모형항공기로 에어쇼를 펼치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찌는 듯한 7월의 무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천시 곤양면에 소재한 KB 인재나눔사천의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16기 신입사원들의 열정과 함성 소리가 퍼져나간다. 지난 7월 13일 대졸 공채 16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KAI 에어쇼’ 현장이다. 우리회사 모형항공기 동호회 회원들의 강의와 도움을 받아 각 조별로 의미 있는 모형기를 만들어 미션 한 가지씩을 수

행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날 멋진 에어쇼를 펼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조별로 마음을 모아 이틀 간 공들여 만든 모형비행기에는 APT사업의 성공을 기원한 문구를 적은 낙하산을 투하하거나 꽃가루나 폭죽, 플랜카드를 장착해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실었다. 한 여름 쾌청한 하늘로 비상한 비행기에는 우리회사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한 각자의 소망과 꿈을 담아냈고, 모형비행기의 이륙에서부터 랜딩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환호성으로 응원을 보냈다.

이번 강의를 진행한 회전익ILS개발팀 배종원 책임은 “이번 교육은 간접적으로 모형비행기 제작을 체험해 비행기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조별 단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 단계별 교육 통해

#### 우리회사의 구성원으로 성장

한편, 16기 신입사원 입문교육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6일, 7월 9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각각 1, 2차에 나눠 실시됐으며 1차 66명, 2차 67

명의 신입사원이 참가했다. 이후 2일간 기본 행정 및 업무·프로세스, 자기계발 등의 역량기본 교육을 마치고, 8일간의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

9월 중에는 부모님 초청행사를 비롯해 연말까지 약 5개월 간 올바른 직업관 제시, 직무전문성 강화 지원, 애로사항 발굴 상담, 인간관계 형성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멘토링을 끝으로 신입사원 전 교육을 마치면 우리회사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임하게 된다.



**“  
KAI의 비전,  
국가 미래산업  
주도할 것  
확신  
”**

# KAI의 최신 항공기술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다

영국 판보로 국제 에어쇼 2018 참가기



우리회사 사장단은 세계 3대 에어쇼로 불리는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참석, 세계시장에 우리의 항공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관련 기술의 발전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돌아왔다. 해외 고객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던 이번 에어쇼에서 우리회사의 마케팅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해 점검한다.

##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로 수출 위한 활동 펼쳐

프랑스 파리 에어쇼, 싱가포르 에어쇼와 더불어 세계 3대 에어쇼로 손꼽히는 영국 판보로 국제 에어쇼(Farnborough International Airshow)가 지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현지에서 개최됐다. 판보로 에어쇼는 1920년부터 1937년까지 열린 영국 공군 에어쇼로부터 시작, 현재 개최지인 영국 햄프셔주 판보로 공항에서 매년 7월 중순 즈음 7일 간 열리고 있다. 주로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이는 행사로 처음 5일간은 무역박람회 성격의 사업자 전용이며, 마지막 2일 간은 일반에 공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회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 '판보로 에어쇼 2018'에 우리회사 김조원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가해 유럽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김조원 사장은 에어쇼 전문 관람기간 동안 현지에 머물며 해외 주요 항공업체 대표와 면담을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며 우리 항공기 수출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앞서 지난 7월 9일 김조원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에도 정부의 경제사절단으로서 기본훈련기 수출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 바 있다.

## T-50과 KT-1, 현지에서 큰 관심 모아

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한 판보로 에어쇼는 52개국 총 1,500여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업체가 현지를 방문했다. 특히 우리회사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에서만 사천항공우주클러스터 회원 13개 기업 등이 해외 마케팅 교류단을 구성해 참가하는 등 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회사는 기본훈련기 KT-1을 비롯해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공격기 FA-50 등 지금까지 개발된 국산항공기와 함께 2022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소형무장헬기 LAH도 선보였다. 아울러 총 145대(35억 달러 규모)를 수출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항공기로 자리매김한 T-50, KT-1이 현지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또 다른 해외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기도 했다.

에어쇼에 참석한 우리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보로 에어쇼를 통해 유럽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고객에게 국산항공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 유수 항공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스페인 기본훈련기 사업에 미국·스위스와 함께 경합

한편, 이번 에어쇼에서 가시적인 행보도 눈에 띈다. 지난 7월 24일 초도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소형민수헬기(LCH)의 수출을 위해 에어버스헬리콥터 사장과 LCH 공동마케팅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기본훈련기 교체사업을 진행 중인 스페인에서 KT-1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고위급 면담을 통해 수출기반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300여대 규모의 스페인 기본훈련기 사업은 2019년에 기종이 결정될 전망으로 KT-1은 미국 호커비치크래프트(Hawker Beechcraft)사의 T-6, 스위스 필라투스(Pilatus)사의 PC-21과 함께 경합 중이며, 기본 훈련기 교체에 이어 고등훈련기 도입사업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판보로 에어쇼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보잉과 에어버스를 대표로 한 전 세계 항공기업들의 각축장이 된 가운데 우리회사가 더 넓은 하늘로 비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회사와 동료를 먼저 생각하는 KAI의 또 다른 원동력

## 6월의 'KAI People' 3인

**우리회사는 매월 KAI인의 핵심가치 실천과 조직문화 활성화 등 모범적인 활동으로 동료들의 귀감이 되는 구성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KAI People'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 면밀한 심사 후 선정된 3인을 만나보자.



### KAI PEOPLE 01 남의 일도 내 일처럼! 협업의 아이콘

기체생산2팀3직 박정호 전문기술원

B737의 날개 부분인 H/S, V/F 납품을 위해 공정완료 후, 이동차인 대형 DOLLY 에 H/S, V/F를 고정시키고, 견인차를 이용하여 조립동에서 외부의 포장반까지 견인 이동해야 한다. 길이 10m, 높이 5m의 대형물이어서 견인차를 후진하여 포장반으로 진입하려면 숙련자 외에는 운전하지 못한다. 매일 3차례의 이동이 이루어지기에 3명의 숙련운전자를 부서 내에 보유하고 있는데 D-day인 4월 25일, 운전가능자 3명이 모두 교육 및 연차로 공교롭게 공석이 됐다. 고민 끝에 2017년까지 부서 내 숙련운전자로 근무하다 기체생산2팀으로 자리 를 옮긴 박정호 전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결과 3차례의 물류이동을 무사히 끝냈으며 납품도 잘 이루어졌다. 박 전문은 이번 물류이동을 위해 본인의 바쁜 업무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뒤 도움을 전해 훈훈함을 안겨줬다.

평소에도 다른 사람의 업무 협조에 깊은 내색 없이 흔쾌히 응대해주는 박정호 전문은 이번 KAI people 선정에 대해 “저 작은 도움을 줘서 뿐인데 이런 상황을 받아 감사하고, 앞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KAI PEOPLE 02 도움 필요한 곳엔 어디든지! 팔방미인 맥가이버

기체생산1팀1직 옥창민 전임기술원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NC 기계가공 경력자이자 현재 가공에 활용하는 장비 11대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기체생산1팀1직 옥창민 전임은 조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과 같은 구성원이다. 옥 전임은 제품 개발이나 양산 시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긴급조치를 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기계 가공의 독보적인 스페셜리스트로 정평이 있다. 기계가공품 개발 과정의 산증인이기도 한 옥창민 전임은 치공구팀, 시설·장비 개발팀과의 원활한 업무 관계를 유지해 작업 안전과 균무환경에도 많은 개선을 이루어내는 진정한 협력의 아이콘이기도 한다. 또한 야간에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어려운 3교대 업무에도 부득이한 결원이 생기면 연속업무를 지원할 정도로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동료이며, 늘 긍정적인 에너지로 주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분위기 메이커이다.

옥창민 전임은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좋은 구성원들과 함께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라며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 KAI PEOPLE 03 미지의 분야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미방산 체계빌더

미방산체계구축팀 서우섭 차장

지난해부터 우리회사는 미방산 회계시스템 구축 및 감사 대응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방산체계구축팀 서우섭 차장은 이를 위해 휴일도 잊고 주도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특히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APT사업의 수주를 위한 제안서 및 사업에 대한 준비로 밤낮으로 고심하고, 자신의 업무 외에도 유관부서의 영향성과 대응방안까지 마련해 가고 있다. 어느 누구도 단 한 번 가보지 않은 미방산 회계구축 업무에 대한 개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서우섭 차장과 팀원들의 헌신으로 일궈나가고 있으며, 그러기에 주변의 격려가 더욱 절실하다고 또한 서 차장은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위트와 격려로 헌총화 기애애한 조직문화를 이끌고 있으며, 열린 마음으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본인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서 차장은 “APT 사업을 위해서 실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일하고 있는데 저만 상을 받은 것 같아 왠지 송구스럽습니다. 저를 추천해준 안재운 선임을 제가 더 칭찬해야 함에도 이렇게 저를 추천해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며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 짜릿한 수상레저를 즐기러 우리 가족이 떴다!

지원체계기획팀  
박병참 선임 가족의  
신나는 수상레저 체험



을 여름과 같은 가마솥 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아이템은 단연 물놀이 아닐까. 여기에 수상레저를 겸한다면 금상첨화. 지원체계기획팀 박병참 선임은 아이들이랑 아내와 함께 짜릿한 해양레포츠에 도전해 보기 위해 삼천포 마리나로 향했다. 가족들의 신나는 물놀이는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 주말부부 가족의 가슴 뛰는 수상레저 체험 속으로

사천시 송포만에는 실안 요트계류장이 있는 '삼천포 마리나'가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휴양시설뿐만 아니라 웨이크보드,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레저클럽도 함께 자리하고 있어 여름 날의 무더위를 말끔히 식혀주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지원체계기획팀 박병참 선임 가족은 아내인 이지현 씨와 10살 아들 준서, 8살 딸 채원이와 함께 이곳에서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한 첫 도전장을 던졌다. 가족이 모두 김해에 거주하고 있는 주말부부인 박 선임 가족은 주말을 사천에서 즐기운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점심 즈음에 만나 예약해 놓았던 실안 아르떼 리조트에 여장을 풀었다. 숙소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가족들은 들뜬 마음으로 삼천포 마리나로 향했다. 레저클럽에 도착하니 웨이크보드는 기본이며 헥사곤, 밴드왜건, 사이언트마블 등 처음 듣는 생소한 물놀이 기구들이 가득했다. 박병참 선임은 각자 즐기기보다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탈 수 있는 디스코팡팡, 빅마블, 땅콩보트 3종 세트를 고심 끝에 선택했다. 준서와 채원이는 살짝 긴장한 듯 보였다. 아무래도 처음 접해보는 수상 놀이기구라 떨릴 수밖에 없었지만, 자상한 아빠와 엄마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안심시킨다. 안전을 위해 폭신한 소재의 수상레저용 헬멧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드디어 첫 번째 기구인 디스코팡팡에 올랐다.

## 바다를 가르는 신나는 디스코팡팡으로 첫 시동

인천 월미도의 유명한 놀이시설인 디스코팡팡처럼 원형의 기구에 가족 4명이 서로를 바라보며 빙 둘러 앉는다. 그리고 나서 모터보트나 제트스키에 기구를 밧줄로 매달아 속도를 내며 물위를 달리면 마치 통통 튀는 디스코팡팡처럼 들썩거리는 스피드감을 만끽하는 놀이다. 모터보트가 빠르게 달리수록 스릴감이 배가되는 디스코팡팡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에게 자칫 공포감을 줄 수 있으므로, 보트는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며 바다를 가르기 시작한다.

약 10여 분간 사천대교를 돌아 실안 앞바다로 제법 멀리까지 나가면서 이리저리 휘젓는 동안 엄마와 아이들의 신나는 비명소리가 들린다. 평소보다 속도를 줄였는데도 아이들보다 엄마가 더 무서워한다. 특히 둘째 채원이는 처음의 긴장감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히려 속도를 더 올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오후의 뜨거운 햇살은 여전했지만, 박 선임의 가족들은 시원한 여름바다를 내달리며 불어오는 바람과 사방에서 튀는 물살을 맞으며 어느덧 여름날의 더위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다. 디스코팡팡 체험을 마치고 선착장으로 돌아온 부부와 아이들은 어느새 얼굴에 힘박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박병참 선임의 가족들이 삼천포 마리나에서 무더운 여름 날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짜릿한 수상레저 기구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아빠는 멋진ダイ빙 솜씨로 10점 만점에 10점!

### 스릴있는 빅마블과 땅콩보트로

#### 수상레저의 재미에 '퐁당'

두 번째는 디스코팡팡과 달리 정면을 바라보며 스릴을 즐기는 빅마블이다. 'ㄴ'자 모양의 기구에 4명이 앞을 보면서 다리를 쭉 펴고 나란히 앉는다. 속도를 너무 많이 내면 자칫 뒤집어질 수 있으니 이번에도 적당한 속도를 유지한다. 빅마블 역시 바다 표면 위를 통통 튀면서 달리는 짜릿함 때문에 수상레저 마니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구다.

이제 아이들은 완벽히 적응한 듯 보였다. 물을 무서워하지도, 수상레저기구를 겁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한 티임이 끝나면 아빠랑 물속에 풍덩 뛰어들 정도로 여유로웠다.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커가니 이제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의 폭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부부는 뿌듯했다. 박병참 선임은 이제부터 시간을 좀 더 내어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을 더 늘여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탈 것은 4인용 땅콩보트다. 구멍 난 흠에 엉덩이를 쑥 넣는 것이 마치 땅콩 같다고 해서 붙여진 듯하다. 채원이의 '출발~' 소리에 보트는 신나게 해안으로 나아간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박병참 선임은 준서와 채원이를 주말에만 볼 수 있어 늘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만큼은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실컷 놀아줄 요량이다.

삼천포 마리나에서의 즐거운 추억을 안고 아르떼 리조트로 돌아간 박 선임 가족 일행은 맛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 조금은 아쉬웠던 아이들의 물놀이 욕심을 핑계 삼아 아빠도 같이 야외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다.

### 주말부부는 더 이상 NO!

####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박병참 선임은 최근 가족과 함께 아르떼 리조트에 있는 바다가 보이는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왔다가 실안의 노을이 너무 예뻐서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리조트에 방이 없어 아쉬운 발걸음 되돌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마침 이곳에 숙박 이벤트와 가족체험 공모가 올라오자 곧바로 응모하게 됐다고 한다.

'저희 가족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우리회사 개



아빠와 엄마, 아이들의 수상레저 기구 체험과 물놀이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도 잘 드러났다. 박 선임의 가족들은 이번 수상레저 체험으로 또 하나의 추억을 가슴 속에 아로새겼다.



방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모형비행기를 날리는 모습이 사보에 나온 것을 우연히 접하고 목표가 생겼어요. 사보에 한 번 나왔으니 가족 체험으로 한 번, KAI people에 선정돼서 한 번, 모두 세 번은 사보에 실려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는데, 이제 한 가지 목표만 남겨 놓았네요."

이렇게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사내에서 일하고 있는 박병참 선임은 결혼 스토리가 남다르다. 약 10여 년 전, 박 선임의 아버지가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 간호사가 바로 지금의 아내 이지현 씨다.

"당시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님이 우리 아들이지만 참 괜찮다며 한 번 만나보라고 저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는데, 평소 같으면 환자 분이 그러면 건

방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모형비행기를 날리는 모습이 사보에 나온 것을 우연히 접하고 목표가 생겼어요. 사보에 한 번 나왔으니 가족 체험으로 한 번, KAI people에 선정돼서 한 번, 모두 세 번은 사보에 실려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는데, 이제 한 가지 목표만 남겨 놓았네요."

이렇게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사내에서 일하고 있는 박병참 선임은 결혼 스토리가 남다르다. 약 10여 년 전, 박 선임의 아버지가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 간호사가 바로 지금의 아내 이지현 씨다.

"당시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님이 우리 아들이지만 참 괜찮다며 한 번 만나보라고 저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셨는데, 평소 같으면 환자 분이 그러면 건성으로 대답만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어찌나 집요하시든지 결국 연락처를 드리고 만나보기로 했죠"

정작 두 사람은 별 기대감 없이 예의상 커피나 한 잔하고 오자는 심산으로 자리를 마련했는데, 만나자

### 해안 절경과 어우러진 풀빌라, 아르떼 리조트(Arte Resort)

사천 실암 앞바다를 바라보며 휴식과 레저가 어우러진 풀빌라인 '아르떼 리조트'는 지난해 세워진 우리 지역의 고급 휴양시설이다. 아르떼리조트에는 Liel, Labium, Deluxe, Suite의 4가지 타입의 객실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있으며 각 객실은 풀과 함께 각종 편의용품 등이 비치돼 나와 가족, 연인만을 위한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시원한 바다의 풍광을 배경으로 자리한 아르떼 리조트의 야외수영장은 큰 인기를 모이고 있다. 또 아르떼리조트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보이는 영화관인 '프리미엄급 영화관 메가박스'를 만날 수 있는데, 전 좌석 커플좌석으로 편안한 자동의자를 배치해 또 다른 휴식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야외 옥상에서 바다내음과 함께 러프탑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으며 투숙객을 위한 조식서비스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아르떼리조트는 우리회사 구성원들을 위한 숙박료 할인 서비스도 하고 있어 벌써부터 예약 문의가 몰려들고 있다고.

전화문의 055)833-5000 홈페이지 arteresort.com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해안관광로 109-10



## 와인의 짙은 향이 배인 여유를 배우다



고정익체계팀 APT 개발파트원들의  
분위기 있는 와인 초보강습



약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 불기 시작한 와인 봄은 이제 일상에 정착해 가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특별한 날에만 구경할 수 있는 주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회사 고정익체계팀에서 APT 개발파트의 업무를 맡고 있는 5명의 구성원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와인과 좀 더 친근해지기 위해 와인 전문가로부터 깊고 강렬한 와인강습을 받았다.

### 이강훈 수석의 팀원들과 추억 쌓기 프로젝트

와인 전문가들이나 소믈리에들은 늘 와인을 편안하게 즐기라고 조언한다. 지금은 와ine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고 다가가기 쉬운 음료가 됐지만, 소주와 같은 '독주'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와인은 아직도 '포도주'라는 과일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와인은 단순히 술이라기보다 문화 인류적으로 방대한 역사를 지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의미 있는 유산이라는 측면이 강하며 지금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생활 속에 녹아들고 있다. 우리회사 고정익체계팀에서 APT 개발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훈 수석은 파트원들과 이색적인 추억을 만들고자 그들 몰래 와인 강습 이벤트에 응모했다. 우리회사가 기대를 걸고 있는 힘든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이어서, 이강훈 수석은 팀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자 김도완 책임, 안종훈 선임, 손영호 선임, 김경우 연구원과 함께 진주시 평거동에 위치한 와인 전문점 '도칠드(Dothchild)'에 함께 했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와인 입문자여서 딱 맞는 눈높이의 강의가 필요했고, 20년 와인 경력을 지닌 도칠드의 도칠환 대표가 이들에게 와인 강의를 흥미롭게 진행했다.

### 초보 입문 위한 품종 별 와인 도전

"강의는 와인을 마시는 법, 에티켓, 와인 종류와 같이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네 가지 종류의 와인을 맛보시면서 각각의 차이점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강사가 자리에 모인 5명의 구성원들에게 각자 와인 경험치에 대해 질문하니 달콤한 모스카토(Moscato)나 도수가 약간 높은 말벡(Malbec) 정도의 와인을 접해 보았을 뿐, 일부러 즐겨 마시지 않는 초보자임이 분명해 보였다. 오늘 이들에게 강사가 내놓은 와인은 포도 품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라이트한 화이트와인 계열인 리슬링(Riesling) 품종 와인과 레드와인 품종인 까베르네소비뇽(Cabernet Sauvignon), 멜론(Merlot), 쉬라(Syrah) 등 네 가지다. 생소한 와인의 이름들이 정신없이 나오고 벌써부터 '소주파' 경향의 참가자들이 어리둥절할 즈음, 강사의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도 그럴 것이, 와인도 명색이 '술'이지 않은가.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천 가지의 품종으로 생산되지만 오늘 강사가 준비한 와인은 보편적으로 많이 마시고, 초보자들도 와인과 친해지기에 적절한 품종이다. 와인은 향부터 음미해야 할 정도로, 약 70~80%의 비중을 향이 차지하고 고급와인일수록 그 비중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와인은 진공상태였다가 뚜껑을 열면 공기와 닿아 빠르게 산화되기 시작한다. 준비한 와인의 뚜껑을 오픈하니 산화가 되면서 와인 특유 향이 올라온다. '스월링(swirling)'은 이러한 와인의 향과 맛을 더욱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소용돌이란 뜻의 스월링이란, 와인을 잔에 담아 잘 산화되도록 혼드는 행위를 일컫는다. 참가자들의 앞에 놓인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고 강사의 설명대로 각자 빙글빙글 잔을 돌리면서 코로 향을 음미해 본다.

### 각국의 풍토에 정착한 대표적 와인 시음

먼저 맛본 것은 리슬링 품종의 화이트와인이다. 주로 독일이나 프랑스에 많이 생산되는 품종으로 알콜 도수가 10% 미만이며, 지금 같은 여름에 마시기 좋은 청량감이 있다. 참가자들은 스월링하면서 향을 맞고 와인을 마신 뒤, 혀로 이리 저리 굴리며 입 속을 와인 향으로 가득 채운다. 화이트와인은 탄닌의 주 성분인 폴리페놀을 함유한 포도 껍질이나 줄기 등을 제거하고 만들기 때문에 떫은 맛이 없어 라이트한 와인에 속한다. 먼저 부담감 없이 살짝 목을 죽인 뒤 다음 단계인 레드와인으로 들어간다.

'레드와인인 까베르네소비뇽 품종은 마트나 와인숍, 레스토랑 등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와인 중 하나입니다. 원래 프랑스 토착품종인데 지금은 전 세계로 널리 퍼져 나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죠. 그런데 까베르네소비뇽은 프랑스, 칠레, 미국, 호주 등 각국마다 향과 맛이 전부 다릅니다.'

레드와인은 다 거기에서 거기인줄 알았는데, 한 품종인데도 전부 맛이 다르다니! 평소 미각이 남다르다고 자부했던 참가자들도 의아해 한다. 강사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나라마다 풍토가 다르기 때문이란다. 프랑스는 땅이 석회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와인에서 과일향을 찾기 어렵다(만약 음식점 테이스트 노트에 까베르네소비뇽에 대해 과일향이라고 적어놓았다면 아마도 장삿속이거나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반면 칠레산 와인 같은 경우 토양에 미네랄이 풍부해 새콤한 과일향이나 특유의 흙향을 느낄 수 있다고.

멜로 품종의 와인은 까베르네소비뇽에 비해 라이트하고 바디감(입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감)도 가볍다. 우유를 예로 들어 물보다 조금 걸죽한 느낌을 받으면 바디감이 무겁다고 설명한 강사의 설명은 귀에 쑥쑥 들어올 정도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와인인 쉬라 품종 와인은 후추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코끝을 살짝 매콤하게 만들어 주는 쉬라는 프랑스에서 호주로 건너가 현지화된 대표적인 와인 품종이라고 한다.

이날 마신 와인 외에도 와인마다 다양한 품종, 수확방법, 제조방법 등 강사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화이트와인의 잔이 작은 이유, 와인잔의 입 부분이 좁은 이유, 좋은 와인잔 등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와인이 그 자체만으로도 각 나라에서 음식 이상의 소중한 문화로 대접받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됐다.

### 농익은 와인의 향기처럼 오랜 동반자가 되길

고정익체계팀에서 APT 파트를 준비하고 있는 5명의 참가자들은 어느덧 와인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형제처럼 허물없는 동료로 또는 선후배로 지내고 있는 이들이, 이날 모인 자리에서도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았다. 평소 이강훈 수

### TIP

#### 마시고 남은 와인 똑똑한 활용법

와인은 한 번 오픈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면 와인식초가 된다. 그래서 마신 와인은 단순히 코르크마개로 막아놓지 말고 가급적 진공마개로 병 속의 공기를 충분히 빼고 막는 것이 좋다. 고급와인인 경우에는 뚜껑을 땀 뒤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와인을 오래 보관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 ① 레드와인이라면 쇠고기를 재우거나 조리할 때 사용하면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고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준다.
- ② 화이트와인은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재우거나 조리할 때 활용하고 해산물에 살짝 뿌려주면 비린내를 잡아준다.
- ③ 남은 와인을 차갑게 냉장 보관한 뒤 얼굴을 씻고 거즈를 덮은 다음 화장솜에 와인을 적셔 거즈 위를 두드려주면 피부를 윤기 있게 해준다.
- ④ 육조에 물을 채우고 레드와인 4~5컵 정도 섞어 넣고 10분 정도 육조에 있다 나왔다를 5분 간격으로 반복하면 피로를 풀어주는 테라피 효과가 있다.
- ⑤ 와인은 기름기를 제거하는 성분이 있어 주방 청소에 활용하면 좋고, 화이트와인은 세탁 시 넣어주면 살균과 함께 옷의 색을 선명하게 만들어준다.



석이 팀 내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잘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 업무에 집중하다보니 자칫 짜증날 법하기도 하고 APT 준비도 마무리 단계여서 파트원들의 기도 한 번 살려주고 우리끼리 웃을 일을 만들어 보고자 파트원들 모르게 신청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호응이 좋아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끼리 모여서 와인 마시는 게 흔하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평소에 농담도 잘 던지고 젊은 세대인 파트원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이강훈 수석의 이벤트 덕분에 파트원들이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된 것 같아 이 수석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때마침 와인 강습 도중, 강사가 던진 와인 이야기는 이들이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선하고도 작은 깨달음을 준다. 어쩌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인생 속에서 와인이 넌지시 던져주는 교훈일 수도 있다.

"와인은 5분 안에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방금 뚜껑이 열렸고, 그리고 스월링을 한 뒤 이제 한 잔 마셨을 뿐입니다. 와인은 계속해서 마셔 보아야 그 진가를 압니다. 그냥 훌쩍 목구멍으로 넘겨버리는 소주보다, 와인을 입 안에 안착시켜 모든 맛과 향을 느끼고 허를 입천장에 붙여보면서 그 여운과 수축감도 함께 느껴봐야 진면목을 알 수 있어요."

APT사업 수주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그 이후에도 농익은 와인의 향기처럼 이들의 특별한 관계가 단순한 직장동료가 아닌 고락을 함께한 파트너로서 지속되길 기원한다.

# 우리 가족에게 행운을 안겨준 괌 자유여행기

## 아이와 함께 설레는 첫 해외 가족여행

김해공항에서 괌까지는 비행시간만 4시간가량 걸린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체감시간은 그보다 길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시간, 비행기 탑승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길기 때문이다. 기내에서 사용할 스티커북, 테블릿PC, 색연필, 장난감자동차, 야기과자 등 만반의 준비를 해갔지만 아이가 울고 힘들어서 아이를 업고 기내를 왔다 갔다 했다. 진땀이 나서 무작정 아이를 업고 서성거리다가 승무원의 권유로 비어있는 화장실 쪽 자리로 가게 되었다. 보통 어린아이가 있는 승객은 공간이 넓은 앞자리에 앉기 위해 비행시간보다 한참 일찍 공항에 도착하거나 돈을 더 주고 사기도 한단다. 우리는 그러지는 못했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 뜻밖의 팁을 얻었다.

시간이 흘러 괌에 무사히 도착했다. 택시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 숙소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었다. 호텔 투숙객들은 픽업서비스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유료이고 택시보다 비싸다. 우리 가족이 머문 곳은 타무닝(Tamuning) 방면의 W호텔이다. 숙소를 타무닝 쪽으로 선택한 이유는 인근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쇼핑몰, 식당 등의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숙소에 아이를 위해 한국에서 전자레인지, 유모차, 침대가드 등을 이메일로 요청해놨는데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기분 좋은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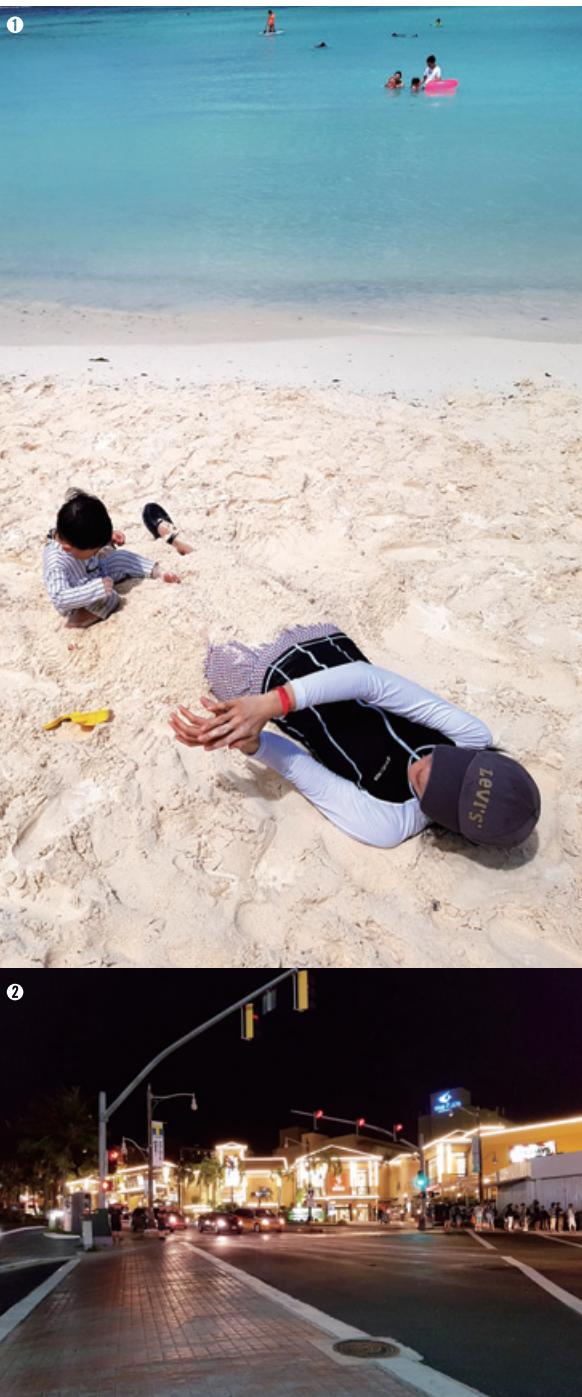
## 입맛에 딱 맞는 식당과 아간 산책의 묘미에 ‘흠뻑’

첫날이지만 3박4일의 길지 않은 일정이어서 수영 후 저녁식사 겸 밤 산책을 나가기로 하였다. 치안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산책은 쉽지 않겠지만, 괌은 관광지여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밤 거리를 즐기러 나와 있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숙소 근처 일본식 식당에 갔다. 분위기도 좋고 맛집으로 소문난 그곳에서 아이는 연어구이를, 우리 부부는 덮밥을 주문해 먹었다. 여행하면 아이 먹일 것이 걱정이기 마련인데 아이가 정말 잘 먹어서 열려서 준비해갔던 이유식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생선가시는 젓가락보다 섬세한 손으로 직접 발라줘야 안전한데 준비해 간 비닐장갑이 유용하게 쓰였다. 쇼핑몰에서 식사를 할 때나 간단한 걸 먹일 때도 꽤나 유용해서 아이와 여행을 계획한다면 비닐장갑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저녁식사 후 숙소에서 투몬샌드플라자, DFS, T갤러리아 쪽으로 내려가며 구경했다. 밤 도심, 많은 인파 속에서 조깅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도 볼거리였다. 괌에 가면 숙소에만 있지 말고 밤 산책은 꼭 해볼 것을 추천하고 싶다.

다음날 저녁은 새우로 만든 요리가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훌 대기가 너무 길어 감바스와 코코넛 쉬림프를 포장해 숙소에서 먹었다. 그런데 느끼하고 농눅해져서 그 맛을 제대로 못 느껴서 아쉬움이 남았다. 역시 세상 모든 음식은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는 사실이 진리임을 또 한 번 깨달았다.

- ① 투몬해변에서의 모래놀이
- ② 숙소근처 아간 산책길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이 없다는 괌. 그만큼 괌은 여행객들에게 인상 깊은 여행지다. 아이가 둘까지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그동안 수고한 우리부부에 대한 자축의 의미로서, 아이와 함께 떠나기 좋은 첫 해외가족 여행지로 괌을 정했다. 아이를 데리고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향수를, 갈 사람들에게는 참고가 될 우리의 가족여행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사진. 생산관리팀 이재호과장



숙소에서 바라본 투몬해변 전경

### 아름다운 투몬해변과 해안 드라이브 코스 만끽

워터파크는 없었지만 숙소 내에 있는 수영장은 바로 앞에 투몬(Tumon)해변이 이어져 있어 정말 환상적이었다. 수영장에서 놀다가 지루하면 바로 앞 바다로 나가서 놀았다. 헷볕이 강해 모자나 선크림 등이 필수. 아이는 모자를 워낙 싫어해서 그늘막이 생기는 튜브를 준비했다. 모래놀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중 하나다. 내가 어렸을 때만해도 모래 만질 수 있는 곳은 집 앞 놀이터였는데 이젠 모래를 만지려면 모래를 구매하거나 바닷가로 가야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해변에서의 시간이 더 귀하게 느껴졌다. 서핑보드, 스노쿨링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도 많았는데, 아이가 좀 더 크면 배를 타고 나가는 돌고래 크루즈도 추천하고 싶다. 여기에서는 돌고래 크루즈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괌에서는 운전을 위한 국제운전면허증은 필요없으며, 우리나라 면허증만 있다면 운전할 수 있다. 렌트 전문업체에 가서 괌 교통법규를 간단히 교육받고 차를 렌트할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은 3박4일 일정 중 하루 정도만 차를 렌트하여 괌 관광에 나섰다. 괌은 우리나라처럼 식민지 역사가 있는 곳이다. 400여 년 동안 스페인, 일본, 미국의 식민지였다. 그 때문인지 요새 등의 관광지가 많았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해 있다. 낮에는 해안가를 따라 드라이브를 주로 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관광지 두 곳을 소개한다.

### 아이의 취향저격 피쉬아이마린파크

첫 번째는 남부 쪽에 위치한 '피쉬아이마린파크(Fish Eye Marine Park)'다. 투몬에서 1번 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면 볼 수 있는 관광지다. 대인(12살 이상) 14달러, 소인(6~11살) 7달러의 입장료가 있고 유아는 무료다. 바다 가운데 전망대가 있고 그 곳까지 길게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차에서 잠이 들어버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이동했다. 전망대까지 걸어가는 다리도 주변 풍경 때문인지 정말 아름다웠다. 눈까지 시원해지는 바다 빛깔과 그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예쁜 산호는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것 같았다.

몇 무리들이 여기저기에서 스키스쿠버 강의를 듣고 있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자유의 몸이 되면 도전해보리라 생각했다. 전망대에 도착하고 지하로 내려가면(계단이 좁아 유모차는 불가) 마치 잠수함을 탄 듯 바다 속 물고기가 눈앞에서 헤엄친다. 아이는 관람하는 문에 붙어서 그 모습을 구경하느라 떨어질 줄 몰랐으며, 간혹 스키스쿠버하는 사람도 손을 흔들며 지나갔다. 투몬 시내에 있었던 언더워터월드라는 야쿠아리움은 가지 못했지만, 가격대비 피쉬아이마린파크는 정말 만족스러운 관광지였다.

### 연인들이 꼭 가봐야 할 성지, 사랑의 절벽

두 번째 소개할 곳은 '사랑의 절벽'이다. 스페인 장교와 차모로족(괌 원주민) 여인의 전설이 전해져 오는 곳으로 유명한 관광지다. 연인은 이루어지지 못할 슬픈 사랑에 서로의 머리카락을 묶고 절벽 아래로 함께 뛰어내렸다고 한다. 현재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장소로 수많은 자물쇠와 하트 모양의 나무 팻말이 지키고 있다. 전망대에서는 투몬베이의 장관이 펼쳐져 가슴까지 뚫리는 시원함을 느꼈다. 유명 관광지이다 보니 사진 찍는 곳마다 사람이 걸리는 것은 조금 아쉬웠다. 짧은 관광을 마치고 K마트, ROSS 등 유명 쇼핑몰도 들러 필요한 것들을 구매했다. 괌이 왜 태교 여행지로 각광받는지 알 수 있었다. 아기 웃이랑 용품들이 정말 저렴했고 명품 족에게는 저렴한 레어템들도 꽤 있어서 만족할만한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를 위한 자동차 모양 카트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도 지루하지 않은 쇼핑을 할 수 있었다.

### 귀국하자마자 기적 같은 둘째 아이와의 만남

아이와 함께 한 첫 해외 가족여행에 자유여행은 처음이라 아쉬운 점과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행복한 여행이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기다리다가 결국 시험관을 통해 첫째를 가졌다. 아이가 하나인 것에 정말 감사했고 둘째를 갖게 될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우연인지, 아니면 가족 여행 덕분에 마음이 평온해진 건지 여행을 다녀온 2017년 3월 우리 가족에게 둘째 아이가 찾아온 기쁨을 맛보았다. 이렇게 행운이 깃든 꿈으로 우리 가족 4명은 두 번째 여행을 준비 중이다.

여름휴가철이 지나갈 무렵 우리회사 동료들은 휴가를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다. 어디를 가든 마음의 휴식이 진정한 휴가인 것 같다. 어느 누가 알리오.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꿈같은 기적이 동료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지…

이제호 과장이 알려주는  
괌 여행 꿀팁!

### ESTA를 아시나요?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는 미국 무비자 여행 승인을 받는 전자여행 허가제로, 90일 이내 동안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들에게 여행을 허가해준다. 신청금액은 14달러, 유효기간은 2년이다.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신청하고 떠나면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만 작성해도 되니 편리하다. 또, 입국심사 때 일반과 ESTA 중 더 짧은 대기 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범위가 생긴다. 어린아이가 있다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 가족은 ESTA를 신청했고 떠나는 당일 성수기가 아니었는데도 일반 대기 줄이 길어 ESTA의 혜택을 보았다. 만약 성수기에 떠나는 여행객이라면 신청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STA는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해 사이트를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③ 피쉬아이마린파크에 끝 빠진 아이

④ 예쁜 물고기가 가득한 피쉬아이마린파크

⑤ 평화로운 해변

⑥ 사랑의 절벽에서 한 컷

⑦ 투몬해변에서 산나는 물놀이

# 『슬기로운 직장생활』

부제 :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직장인 최고의 낙이자 안식기간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칠말팔초(七末八初)', 직장인들이 휴가를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인 7월초부터 8월말까지의 기간을 일컫는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도심은 한산하고 피서지는 북적이는 바야흐로 휴가 포텐 터지는 시즌! 저마다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방법으로 잘 쉬고 잘 복귀하는 법, 휴가철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 KAI 나눔봉사단이 만든 안전구역 '엘로카펫' 안전의 '노란 불'을 함께 켜다

어려운 사람을 돋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의 후원방식이다.  
하지만 우리회사 나눔봉사단은  
이번에 조금 다른 이슈와 그 이슈에 대한  
효율적인 솔루션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바로 관내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사천시 최초 '엘로카펫'을 설치하기로  
한 것. 총 3호의 엘로카펫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뜻 깊은 날의 풍경을 담아봤다.

### 사천 관내 보행안전 수호의 초석을 놓다

지난 7월 25일 수양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우리회사 나눔봉사단을 비롯, 사천시청, 경남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본부(이하 초록우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엘로카펫 기증식'을 개최했다.

앞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에 걸쳐 환경정화 및 카펫 설치가 완료된 세 곳 중 한 곳인 수양초등학교 엘로카펫으로 자리를 옮겨 관계자들과 어린이 대표(수양초 회장, 부회장) 간에 기증식 및 현판식을 진행했다. 사천시 엘로카펫 프로젝트는 기존 사회적 악자에만 머물러있던 복지의 대상을 확장하여 학령아동, 임산부, 노인 등 관내 교통 악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사천시에서는 최초로 기업이 주도적으로 지원과 후원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에 우리회사 사회공헌팀이 먼저 교육청과의 공청회를 통해 지역 관공서를 설득하고 수많은 협의 끝에 1호·2호·3호 엘로카펫 동시 설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나눔봉사단 배진영 과장은 "엘로카펫 3호를 동시에 설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사천 관내에서 최초라는 사실과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기업의 일원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향후 추가설치 및 기존 설치지역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MINI INTERVIEW①

"폭염 속에서도 최선 다해주신  
KAI 직원 분들, 어머님들 모두 감사"  
사천녹색어머니회 윤순주 회장



### MINI INTERVIEW②

"언제나 수혜자 중심인  
KAI의 나눔 행보에 감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본부 양승만 과장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엘로카펫(Yellow Carpet)이란?

엘로카펫은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돋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낮지효과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횡단보도 진입부에 설치된 엘로카펫을 통해 어린이들은 안전한 영역에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고, 운전자는 이 공간에서 대기하는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 상단에 부착된 천환경 태양광 램프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도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도와준다. 현재 전국 706곳(6월 기준)의 공간에 엘로카펫이 설치되었으며 그중 경남은 최초 설치 지역인 진주를 시작으로 통영, 청원에 걸쳐 6곳에 설치되었고, 최근 사천시 관내 3곳(수양초, 사천초, 동성초)에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

\* 낮지효과: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



엘로카펫 설치하기 하루 전날 KAI 직원 분들과 녹색어머니회의 많은 어머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야 저희 아이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데요. KAI 직원 분들의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요즘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정화 작업이 너무 힘들었는데,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서로서로 힘과 에너지를 북돋아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KAI가 사천 및 경남 지역사회에 소외계층을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함께해보니 그 진정성을 더욱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단의 특성상 아동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무엇을 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 악자인 아이들의 학교 통학로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KAI 나눔봉사단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여 같이 힘든 과정을 이행해주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KAI 봉사단의 꾸준함, 우직함 그리고 KAI인들의 사랑의 후원으로 엘로카펫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원래 사천에 있는 기업 대부분이 단순기부 형태로 후원하고 있지만 KAI는 사천의 대표기업답게 늘 적극적인 형태로 봉사프로그램과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래 사천은 복지 혜택이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KAI 덕분에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 MINI INTERVIEW③

"평소 존경하는 기업인  
KAI의 봉사정신을 보고 배울 터"

수양초등학교 어린이회 이상훈 회장·복선우 부회장  
평소에 학교 앞을 오가면서도 늘 위험해보였던 위치였는데, 이렇게 예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 KAI 직원 분들과 관계자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 앞에도 이런 근사한 공간이 생겨서 정말 뿌듯해요. 생활의 불편함이나 어려움, 그리고 위험함을 없앨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실현시키기가 많이 어렵다는 사실을 저희 같은 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로카펫을 설치하는 일도 KAI와 같은 큰 기업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겠지요. 저희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렇게 다방면으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마음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 바르게 자라 좋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 “나부터 바뀌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조립생산팀 김상규 조장이  
이승민 사원에게

『스님의 주례사』법륜 지음 / 휴(休) 펴냄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다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성공해 평생의 반려자로 살아가기에,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녹록하지 않다. 바람직한 남녀 관계의 해법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조립생산팀 김상규 조장은 내년 결혼을 꿈꾸는 이승민 사원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작은 지혜를 선물했다.

## 남이 바뀌길 바라는 일, 그것은 단지 욕심일 뿐

아파치 헬기의 동체를 최종 조립하는 조립생산팀 김상규 조장은 이미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지만 조원들과 함께 부대끼며 일하면서 세대 차를 넘고자 무진 애를 써왔다. 옛날 방식대로 직원들을 대하지 말고 이른바 '꼰대'는 되지 않아야 한다는 선배들의 조언을 익히 알고 있던 바였다. 한때는 잔소리도 많았고 답답한 마음에 술도 자주 마시곤 했지만, 요즘은 그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마음도 많이 내려놓았다.

“조원들이 저와 나이 차가 조금 나는 20대여서 업무 중에도 간혹 다투기도 하고 화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책 한 권을 읽고 그것이 저의 욕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상규 조장이 김명 깊게 읽고 조원인 이승민 사원에게 추천한 법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는 부부 사이에 서로 상대방이 변해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은 단순한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보다 내가 바뀌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며 그것이 인생의 운명을 내 손에 훨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 부부와 연인이 함께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주변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것은 자기 기준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조원들 중에도 여자친구와 싸웠다가 화해했다가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들에게도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해 주고 싶어요.”

우연히 한 TV교양프로그램에서 이 책을 접하고 책을 구해 아내와 함께 완독했다는 김상규 조장은 비록 가톨릭 신자이긴 하나, 종교를 떠나 분명 좋은 책이라며 염지를 추켜세운다. 때마침 이승민 사원이 지금의 연인과 내년 즈음 결혼을 기약하고 있어 김상규 조장이 이 책을 선물하게 됐다고.

“책임감이 강하고 평소 조원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장님! 오래 전부터 권해주셔서 읽어보려고 검색도 했었는데, 이렇게 선물을 직접 받게 되니 반드시 세 번은 정독하겠습니다.”

이승민 사원의 농담처럼 김상규 조장이 '당근보다 채찍'을 가하는 스타일이라고는 하지만, 후배들을 걱정하고 아끼는 그의 마음만은 오롯이 전해지길 기원한다.

##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과 CEO 간담회 실시

우리회사 김조원 사장은 지난 7월 24일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2차) CEO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새내기 사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16기 공채 신입사원들은 우리회사의 미래 가능성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날 김조원 사장은 “우리회사는 정부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훈련기 개발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고,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위성까지 KAI에서 생산할 것이며 발사체 조립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인기 부문 사업까지 성공한다면 국내에서 ‘비행체’로 일컬어지는 것은 모두 우리회사에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사장은 “지속적으로 항공기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가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우리회사는 사장의 역할이 없어도 될 만큼 튼튼한 역량을 가진 회사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여러분들도 원리와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KAI의 구성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CEO 간담회는 김조원 사장이 젊은 신입사원과의 스킨십을 통해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과 경영방침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하고 KAI의 가족이 된 것을 격려함으로써 적극적인 소통경영을 실천했다.





## MAIN ISSUE

### 소형민수헬기(LCH) 1호기 성공적 초도비행

우리회사가 에어버스헬리콥터(AH)와 함께 국제공동개발 중인 4.9톤 급의 소형민수헬기(LCH)가 지난 7월 24일 프랑스 마리냥(Marignane)에 위치한 AH 본사에서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LCH 초도비행 기념행사는 AH 중대형헬기 사업본부장과 우리회사 회전익개발 담당 상무 등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한 관계자는 “LCH가 개발에 착수한지 3년 1개월 만에 설계, 제작, 지상시험을 거쳐 비행시험 단계로 접어들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일정 준수는 물론 안전하게 개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개발에 착수해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LCH 체계개발사업은 2대의 시제기가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에 비행에 성공한 1호기는 EASA 인증 획득을 위해 AH의 주관 하에 프랑스에서 제작 중이며, 2020년 4월 인증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산화 품목을 적용해 개발하는 시제 2호기는 현재 최종 조립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시제기가 출고된다. 시제 2호기 출고 이후 국내 개발 구성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인증 받을 예정이다.

한편, LCH는 누적 비행시간 500만 시간으로 비행안전성이 입증된 EC155B1을 기반으로 메인기어박스, 조종실, 캐노피 등에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개발되며, 다양한 임무장비 장착도 가능해 소방·경찰·해양경찰·산림 등 정부기관용 헬기는 물론 응급구조용(EMS) 닥터헬기, 승객 수송(VIP)·관광 헬기와 같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성공적인 RIUETS CDR 수행 완료

6월 20일 우리회사 RIU의 시험장비인 RIUETS의 CDR(상세설계 검토회의)을 수행하였다. 협력업체 영풍전자가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CDR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 및 합의 도출로 이루어졌다. 각 담당자들은 RIU의 건전성을 시험하는 장비인 RIUETS를 개발한다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회의에 집중,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 2018년 전반기 KF-X 사업관리자회의(PMR) 개최

6월 25일 개최된 KF-X 사업관리자회의(PMR)에서 2018년 전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후반기 업무계획, 사업관리 및 체계개발 분야별 진행현황과 계획 등을 발표하고 개발 진행현황 점검 등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토의와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KF-X 체계개발 관련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사업청, 국방부, 공군,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 지원센터 등 정부 관계자 60여 명을 비롯하여 KF-X/I-F-X 국제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PTDI 사와 록히드마틴사, 국내 협력업체가 참석해 KF-X 체계개발 및 사업관리 분야 주요사항과 한-인니 공동개발 현황 및 주요장비 구매현황을 점검하였다.

### 무인 VTOL 기술시범기 지상시험 진입

7월 5일 우리회사 2공장에서 무인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수직이착륙) 기술시범기 사업관리자회의(PMR) 및 부체계 연동시험 착수 검토회의를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육군은 최근 고조되는 무인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할 예정으로, 무인기를 통하여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봇 전력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 우리회사는 고정익 무인 기뿐만 아니라, 회전익 무인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무인 VTOL 기술시범기를 개발 중으로, 이번 검토회의를 통하여 지상시험 수행까지 확정하였다.

### 제5회 전자식 비행제어 기술교류회 수행

7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우리회사 비행제어 관계자, 공군정비사, 한화-LIG 관계자 등 101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식 비행제어 기술교류회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T/F/A-50 항공 기에서부터 F-15K 및 A330 MRTT 급유기까지 현재 운용 중인 항공기의 기술적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논의 주제로는 F-15K OSW(Overload Warning System), 공중급유기 소개, 비행제어계통 결합의 디브리핑 중요성, T-50 항공기 동계 비행제어 결합 관련 개선 건 및 VADR(Voice and Data Recorder) 자료로 활용한 비행제어 조종면 리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KF-X 항공기 비행제어 계통 설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과 함께, 뜨거운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 NEWS PANORAMA

**05 KF-X 아이언버드 시험장비 통합 워크숍**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아이언버드 시험장비의 통합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우리회사 KFX제어시험팀을 주축으로 개발 중인 아이언버드 프로젝트는 비행제어·유압계통의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감항인증 기준을 입증하기 위한 동적 시험설비로서 8개 서브시스템(기체구조, 유압튜빙, 유압계통, 와이어하네스, 관성시스템, 공력부하시스템, 데이터획득시스템, 통합 제어시스템)으로 세분화하여 분야별 전문업체를 통해 개발 진행 중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각 서브시스템별 아이언버드 상세설계 진행현황 검토, 인터페이스 항목 식별 및 서브시스템 간 공유항목 검토, 아이언버드 통합 개발일정 검토 및 아이언버드 시험동 레이아웃 검토 등 설계 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업체 간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01 각 사업장에서 사랑의 헌혈캠페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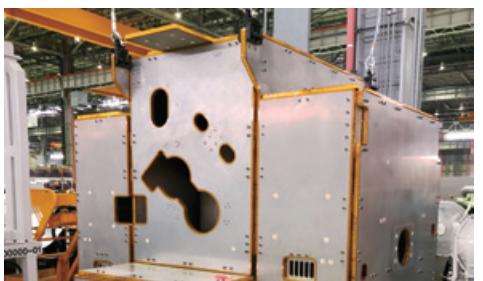
6월 29일, 7월 2일 양일간 우리회사 나눔봉사단은 본사, 2사업장, 산청사업장에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총 127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이번 헌혈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헌혈증 25장 및 누적된 약 400여 장의 헌혈증은 추후 혈액이 부족한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에 기증할 예정이다.

**06 2018 국방과학기술 대제전 참가**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우리회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주최·주관의 '2018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업체로서의 위상제고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KF-X, LAH 모형과 상륙기동헬기, 의무후송헬기를 전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방사청장, 국회 국방 위원장 안규백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은 LAH 및 의무후송헬기에 관심을 보였으며, 우리회사 사업본부장 김형준 전무는 안규백 의원과의 환담을 통해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KF-X 사업진행에 대한 일반 관람객들의 질문이 가장 많았던 만큼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02 사랑의 장수사진 재능기부 봉사활동**

6월 14일 우리회사 나눔봉사단은 주사랑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 30여 명을 위한 '사랑의 장수 사진'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메이크업 및 한복 대여 서비스로 단장을 마친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장수사진 촬영 및 영정액자 제작을 진행했다. 현재 인근 지역에서 한해 격월로 실시하는 사랑의 장수사진 재능기부 봉사활동은 차후 지역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수행해갈 예정이다.

**07 시험용 달궤도선 SDM 구조계 납품**

7월 13일 우리회사는 시험용 달궤도선 SDM(Structure Development Model) 구조계 개발을 완료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납품하였다. 시험용 달궤도선에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달 감마선 분광기 등 국내 개발 탑재체 5기와 미 항공우주국의 쉐도우 카메라가 장착된다. 이번에 납품한 SDM은 구조시험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내년에 제작하여 2020년 발사 예정인 비행 모델은 달 극궤도를 공전하며 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지구로 전송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03 사천하늘사랑어린이합창단, 꿈과 희망 담은 합창공연**

6월 14일 우리회사 나눔봉사단에서 후원하는 '사천하늘사랑어린이합창단'이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실시한 토요상설무대 프리포즈 행사에 참여해 사천시민들을 대상으로 멋진 합창공연을 펼쳤다. 사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생활하는 초·중학생 아동들로 선발된 합창단은 이날 공연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원 합창공연, 어린이날 공연, 마산야구장 합창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가지며 나날이 성장해가는 실력을 뽐내고 있다. 이에 우리회사 나눔봉사단은 소외계층 아동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08 B777X Wing Rib Assembly 초도 납품**

7월 20일 우리회사는 고객사인 보잉사에 B777X Wing Rib Assembly 초도품을 출하하였다. 지난 2017년 11월 가공에 착수하여 올해 4대를 납품하고 월 6.7대 생산을 목표로 2030년까지 총 788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우리회사가 대형 항공사의 주력 기종인 A350과 B777X 기종의 Wing Rib 생산 능력을 이처럼 확보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형 Wing Rib 제작 전문업체로서의 세계적 생산 능력을 입증하게 됐다.

**04 10여 개 학교 및 단체 참가해 에비에이션 7월 캠프 개최**

7월 17일 우리회사 에비에이션 7월 캠프에는 마산 삼진중학교를 비롯해 총 10여 개 학교 및 단체가 참가하였다. 이날 창선중학교 학생들의 방문으로 진행된 캠프에는 평소 KAI라는 회사에 대한 동경과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궁금해 하는 꿈과 열정이 가득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날 열린 이론학습 시간에는 산화와 환원이라는 과정을 실험하면서 직접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항공기동 견학과 시뮬레이터 체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정은 이날 캠프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고조시켰다.



## 독자 여러분의 소감을 담은 목소리를 보내주세요.

<Fly Together>를 읽고 난 소감과 독자 퍼즐의 정답을 모바일웹진(<http://kaiwebzine.com>) 독자세상 코너의 댓글이나 이메일(wowdan@koreaaero.com)로 보내주세요.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증정합니다. 모바일 웹진 어플 설치방법은 우측페이지 이벤트 내용을 참조하세요.



## 본부별 사내 기자단

- 개발본부 개발지원팀 **이현정** 과장 pbs99@koreaaero.com
- KFX사업부 KFX사업관리팀 **김미영** 과장 kmyeong@koreaaero.com
- 운영본부 운영지원팀 **장재완** 부장 aerody@koreaaero.com
- 사업본부 사업기획팀 **이경태** 과장 daeca@koreaaero.com
- 관리본부 경영기획팀 **박재환** 사원 jaehwan.paik@koreaaero.com

● 무더운 날씨를 잠시나마 식혀주던 장마가 금세 지나 가버리고 여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들입니다. 이내 찾아올 한 여름 무더위를 대비하라는 하늘의 깜짝 선물이라 생각하며 다들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이호준 님(독자)

● 아들에게 멋진 KAI 시계 선물을 해주고 싶어, 매월 '독자세상' 코너에 꾸준히 도전중입니다. 제가 당첨 되지 않은 지면을 확인할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긴 하지만 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해보려 합니다. 아울러 항공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도록 구성해 주신 사보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KF-X PDR의 성공적인 수행을 축하합니다.

정병민 선임연구원(KFX유압착륙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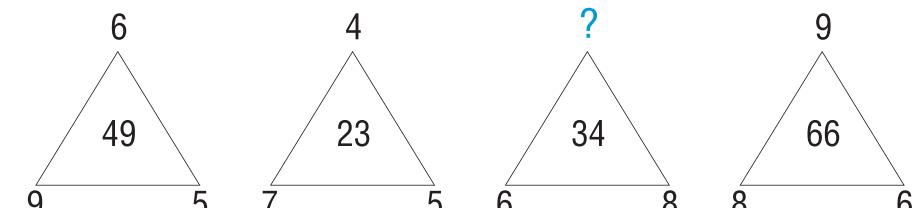
● 모두가 '성공'에 주목할 때! 실패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으로 성공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스페셜 테마가 무척 좋았습니다.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 성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실패'의 의미를 되새기니, 성공으로 향하는 모든 과정과 도전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착한 실패를 통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여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게 완성되는 '좋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두 책임연구원(자원체계기획팀)

이창호 선임연구원(회전익훈련체계개발팀)

## PUZZLE. KAI 독자 여러분 중 뇌섹남, 뇌섹녀를 찾습니다!

**Q**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입니까?



7월호 정답 : 10



## 더욱 간편해진 모바일 앱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우리회사 사보 <Fly Together>가 모바일 앱으로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Fly Together>는 PC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주소창에 [kaiwebzine.com](http://kaiwebzine.com)을 입력하거나 QR코드를 통해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모바일 사보 어플리케이션 설치방법



- 안드로이드**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이 사보'로 검색한다.
  -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 아이폰**
- 앱 스토어에서 '카이 사보'로 검색한다.
  -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다.

### 모바일 사보 앱 등록 기념 이벤트

자신의 스마트폰에 사보 앱을 설치하고 각 칼럼 속 숨어있는 우리회사 KAI의 CI를 찾아 캡쳐 후 모바일 사보 앱 이벤트 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2018년 8월 6일~20일

#### 상품



T-50 모형(스탠드형)  
(1명)



파리바게트 케이크  
기프티콘(3명)



투썸플레이스  
투썸 기프티콘(5명)

#### 7월호 당첨자

- KFX형상설계팀 주영신
- 기체생산팀 전재만 / KFX연료환경팀 이지훈 / 고정익훈련체계개발팀 서대성
- 후속운영지원팀 최지윤 / 기체생산팀 이근수 / 구성품품질팀 이태희 / KFX제계종합팀 김경상 / 장비개발팀 조철민